

21세기를 위한 공정거래

송경섭

LG산전(주) 공정문화추진팀 팀장

최근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를 확대하고 각종 조사 및 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공정거래 추진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정거래제도의 실천 의지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어느 만큼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추진 의지 및 정책은 기업들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추진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21세기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과제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공정거래제도 실천 현황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와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 및 '각종 민원처리의 신속성 강화' 등 각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 확대 이후 '직권조사 강화' 및 '불공정거래의 적발체제를 강화' 하여가고 있다.

반면에 몇몇 기업들로부터는 자율적인 준수 의지를 엿볼 수는 있지만 자율적인 공정거래준수에 요구되는 가이드 라인의 궁핍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매스컴 등 사회적 여건과 정책의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대응 의지가 빈약하고 기업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거래풍토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약을 위한 과제

공정거래제도는 광범위한 사업자의 모든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써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 및 지침만으로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데 요구되는 의문사항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각종 거래분야별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OECD가입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민·관 협동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체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추진의 강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실무처리기준(가이드 라인)을 확립하여 21세기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영역(Leap Zone)을 구성하여야 한다.

과제 추진방법론

한국공정경쟁협회가 주관이 되어 각 법률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제도연구회와 정책연구회로 구별하여 추진함이 요구된다. 제도연구회는 공정거래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해 각

종 법률을 구분하여 민·관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4개 연구반으로 구성토록 한다.

즉, ①독점규제 연구반 :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사항에 대한 실무처리 기준 설정, ②공정거래 연구반 :



(Leap Zone 분포도)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사항에 대한 실무처리 기준 설정, ③하도급법 연구반 : 하도급법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무처리 기준 설정, ④약관법 연구반 : 약관법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무처리 기준 설정반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연구회는 OECD 가입 이후 예상되는 역외적용 등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①역외적용 연구반 : OECD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②자율준수 연구반 : Compliance Program 연구 및 적용기술개발 등 2개반으로 구성한다.

이 두 개의 연구반은 주로 기업의 거래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이 주된 내용인 바, 기업체가 중심이 되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동요’는 평안을 주고, ‘뽕짝’은 추억을 준다

김준호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과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노래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TV, Radio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에 귀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단 물리적인 환경뿐은 물론 아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내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는 다정한 벗중의 하나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하기 위한 준비물이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이며, 손쉽게 접하고, 직접 부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대리 배설, 카타르시스의 도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듣거나 혹은 흥얼거림으로써 함께 하고, 나의 주변에 언제나 머무르는 다정한 나의 친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내가 노래를 아주 잘해서 주변의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넋을 빼앗거나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노래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편하게 즐길 것으로써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물흐르듯이 분위기와 상황에 맞추려고 노력할 뿐이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음치 소리 듣지 않을 정도의 재능(?)은 있었던 듯 싶다. 콩나물과 8분음표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이곳저곳 분위기와 상황을 접하면서 하나둘씩 배운 노래가 내 삶을 조금은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 같다.

노래를 좋아하는 기준으로 혹자는 그 선율에 흔들

리고, 혹자는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혹자는 그 분위기에 취해 버린다고들 한다. 또 어떤 이는 선호하는 가수에, 어떤 이는 그 노랫말의 아련함에 젖어 버리고는 한데, 나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여 자주 듣게 되는 노래들은 내 지나온 삶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내 노래의 첫째로는

무어니무어니 해도 흘러간 옛노래이다. 경기도 양평에서 나고 자란 나의 어린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 드물었고, 특히 노래라는 것은 학교에서 접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 뽕짝, 트롯가요들이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의 입을 통하여 당시 어린 아이들의 뇌리 깊숙히 자리잡게 된 것은 아주 당연스런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 후 세월이 흘러도 아스라한 추억과 더불어 떠오르는 것들이 그러한 옛노래들이다. 향수에 젖어 박달재도 여러번 울고 넘었고, 뜨거운 안녕도 여러번 겪었던 것 같다. 이제 옛노래는 쉬지 않고 10여곡 이상은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 않나 싶다.

요즘 새로운 취향 하나는 신곡 배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다. 직장 생활을 10여년 이상 하고 나니 위에서 치이고 아래로 받친다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 소위 X세대로 불리워지는 신세대들과의 접촉이 늘면서 신곡 배우기를 시작하였고, 루마표(?) Tape들을 틈나는 대로 구입, 차에서 듣고

다녔다.

도대체 이 노래가 팝송인지, 국산인지, 한국사람이 부르기는 부르는 것인지 알지도, 들리지도 않은 고행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냈다. 이처럼 알아듣기도 어려운 랩들도 듣고 또 들어보니 하나둘씩 들려오는 것이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듯 하였다. 이제는 따라 부르는 못해도 못알아 듣는 이에게 번역해 줄 정도는 된 듯 싶다.

지금 까지 내가 듣고 부르는 노래의 특성이

나보다 윗세대 혹은 나보다 아랫세대 에 어울릴 수 있는 노래라면 그 이외에 정말 나만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 들은 누구나 자장가를 배우게 된다. 말이 필요없다. 아이들이 주로 어머니와 지내지만 아버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이와 둘만 남고 재워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배운 '모짜르트의 자장가', '브람스의 자장가' 를 들려주면 신기하게도 잠이 드는 아이들 때문에 저절로 노래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몇개월 이상 자라면서 자장가와 더불어 또 새로 배우는 노래들이 아이들을 위한 동요이다.

나의 아이들이 대중가요를 따라하고 흥내를 내는 것이 한편 신기하고 귀여우면서도 아이들이 동요를

들으면서 심성바르고 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리라. 그렇다고 클래식을 들려 주기에는 우선 내가 버겁고 해서 동요를 배워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동요가 이제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스트레스 해소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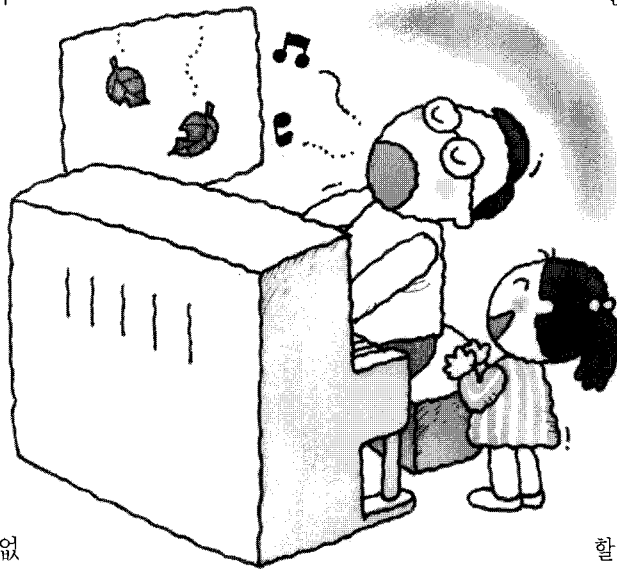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소유분산, 공정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

의 실현을 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슬퍼런 조사에 대한 자료 대응과 기업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답답, 갑갑할 때는 또 집에서 동요를 부른다. '겨울 나무'나 '모래성'

등을 스스로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안정되고, 순화되며 나도 모르게 나의 어릴 적 순수함에 젖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낙엽이라도 지는 가을에는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의 노래와 스스로의 반주에 취하여 아련한 옛생각에 잠기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해 두해 나이를 쌓아 올리며, 내 삶에 새로운 노래를 쌓아가면서 또 그렇게 세월을 흘리고 있다. ■



거간과 여리꾼

이용선 / 전주일보 주필

무주공산 (無主空山)에 뜬 달은 공짜로 구경하고, 정처없는 바람은 공짜로 숨쉬고 살지만 사람이 소용닿는 물건치고는 공짜가 없는 것 같다.

물건은 값을 주고 사야 하고, 남한테 고마움을 받으면 뒷날에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공짜가 없는 것인데 요새로 치면 브로커나 세일즈맨, 보험모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옛날에도 좋은 일은 하지만 공짜로는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사는 직업인'이 많았다.

가령 한강 송파나루에 장이 섰다고 하자. 대개는 물건을 그 자리에서 사고 판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거래가 전부 그런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팔 사람에게 팔도록 유도하고, 살 사람에게 사도록 종용해서 매매를 성립시켜 주는 흥정꾼들이 있었다. 흥정은 누가 면허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흥정을 붙이고 싸움은 말릴 수' 있지만 이런 흥정만을 붙여주는 직업인들이 바로 거간(居間)이다.

“아니 거간은 상점이나 여각(旅閣)에 딸린 식구가 아니오!”

“조직상으로는 상점 주인쪽 심부름꾼 같지만 행위(흥정)는 주인쪽에만 편들거나 치우치지 않았소. 그래야지. 주인만 이롭게 하면 바람잡이일 것 아니오!”

이래서 흥정을 붙여주고 구전(口錢)을 먹는 거간들은 여간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령 누가 요즘의 대형회사 같은 여각이나 객주(客主)를 내고 있으면 이런 여각이나 객주에는 반드시 거간들이 딸려있다.

여각이나 객주는 생산자나 하주(荷主)의 물건을 자기 돈으로 사서 다시 이익을 붙여 판매하는 상인이 아니다. 그보다는 생산자나 하주가 맡긴 상품을 팔아주는 위탁영업자다. 그 위탁영업자가 하주나 생산자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 다시 거간들을 두니까 객주와 거간은 동상(同商) 관계나 같다.

물론 매매권은 전적으로 객주에게 있지 거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종(主從) 관계는 있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간이 객주한테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거간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브로커들인 것이다.

이 거간들이 객주의 부탁을 받고 시장에 물건을 나고 드는 일이며, 누가 무엇을 사려고 한다는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북에는 강원도 쪽에서 배를 타고 온 나무장사들이 주욱 늘어서 있다. 솔가루(솔잎)집도 있고 솔가지나 장작, 삭정이 나무들도 수십바리씩 늘어서 있는데, 한낮이 기울어 점심 셋때쯤 되면 나무꾼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날씨는 초가을이 겨웠으니까 속이 비면 덜덜



떨리는데 막걸리 한사발로 얼요기는 했지만 나뭇짐이 팔려야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닌가!

“어디서 오셨소?”

“남한산성 아래서 왔소.”

“멀리서 왔는데 나뭇짐을 도로 가지고 돌아갈 수야 없지 않소? 싸게라도 파시오.”

“다 사실려오?”

이런 시골 나뭇꾼들을 상대로 해거름판이 되면 값을 후려쳐서 사두는 시라소니들도 있다. 싼 나무를 거의 공짜로 뺏다시피해서 쌓아두고 제가 팔아먹는 나무장수 킬러들이다.

거래는 그런 중상꾼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쉽지만 너무 값을 후려치니까 나뭇꾼들은 어떻게든 직접 땀사람을 만나려 하고, 그렇게 땀집을 소개시켜줄 거간을 찾는 것이다.

“나무 짐을 짊어지고 따라 오시오.”

“땀니까?”

“저 아랫동네 송주사네가 나무를 좀 들여 달라고 했으니 그 집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장작짐을 팔아주고 나뭇꾼한테서는 몇 푼의 구문(口文)을 챙겼다. 그 중에서도 과실이나 나무를 거간하는 흥정꾼들을 중도위라고 했다.

그런데 거간들의 흥정이 비교적 공정했던 이유는 어디서 나올까? 구문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 양쪽 모두에서 똑같은 액수로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간(居間)과 여리꾼(列立軍)은 다르다.

여리꾼은 그 상점의 점원이 아니면서 그 상점 문밖에 서서 물건을 사려는 손님을 상점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호객(呼客) 행위자다. 그래서 구전(口錢)을 상점주인한테서 받으니까 상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지만 거간은 양쪽에 다리 하나씩이 걸쳐져 있는 탓으로 공평한 흥정을 해야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간은 속임수를 안 썼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20년안에 전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여 평균수명

● 건·강·에·세·이

당신은 지금 '담배'라는 이름의 마약을 피우고 있다!

정순철
의학박사

도 25년이 단축될 것이고, 흡연으로 인해 10초에 1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7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연간 담배 소비량은 폴란드가 1위, 2위 그리스, 3위 헝가리, 4위가 일본, 5위가 한국이다.

당신은 아직도 독이 든 담배연기를 허파 속으로 들며마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담배에는 사람의 몸에 해로운 여러가지 유해성분이 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니코틴(NICOTINE), 타르(TAR), 카본 모노사이드(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유해물질이다. 그 중 니코틴은 무색유성으로 독성이 강한 액체로 소량일 경우 자극제로 사용하지만 다량일 경우 억제제로 사용한다. 니코틴 0.6mg을 직접 혈관에 주사하면 사람이 죽는다. 한개피의 담배를 깊게 흡입했을 때 90%의 니코틴이 몸에 남아있게 되며 단지 입에 물고 있다가 내뿜으면 25%~30%의 니코틴만 몸에 남는다.

그렇다면 왜 담배가 당신의 몸에 해로운가? 생물학적으로 니코틴은 심장혈관과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두뇌활동을 어렵게 하며, 정신활동도 극히 위축시키고, 심장 마비와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중년기의 흡연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타르는 수백가지의 다른 화학물질과 합성을 이루어 발암인자(CARCINOGENIC)로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타르를 흡입하면 폐와 기관지에 접합하여 세포에 주는 화학적 자극 때문에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금연을 권하는 것이다.

카본 모노사이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나오는 아주 위험한 독가스로 흡연시에 발생하여 인체내에서는 혈액속의 산소를 제거함으로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야간에 시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매우 강하여 폐포내에서 가스교환작용을 방해하여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드디어 담배의 실체가 중독성 마약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NICOTINE)을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건의를 받아들여 담배를 마약(ADDICTIVE DRUG)으로 선언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이미 1964년 보건장관의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1971년 TV와 라디오의 담배광고를 금지시켰고, 1992년에는 폐암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등 담배의 마약 선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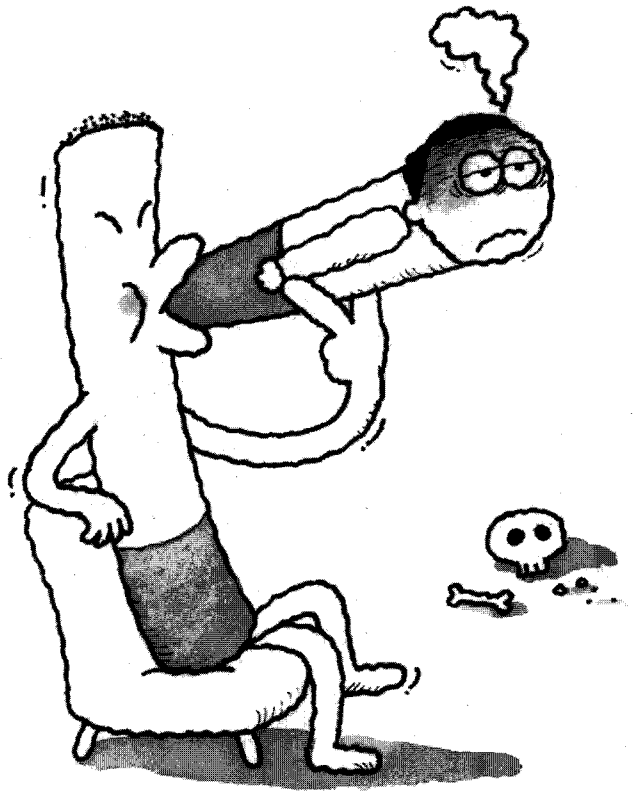
이제 미국에서는 담배가 마약으로 선언된 것을 계기로 FDA가 강력한 권한으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주변 3천미터 이내에는 담배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경기장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담배의 자동판매와 우편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시 연령 확인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14개주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며, 실제로 미국 내에서 1977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 음식점에 금연석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단행한 후 많은 주에서 실내 금연을 의무화 한 결과 흡연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이며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청소년의 흡연과 마약류 복용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12~17세)들의 마리화나, 코카인, LSD 등의 마약류 복용율이 1992년에는 5.3%였다가 94년에 8.2%, 95년에 11%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제 담배까지 '중독성 마약류'로 분류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세계적으로 자극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담배를 국가에서 전매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실태는 과연 어떤가? 1996년 5월 31일 한국보건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흡연율은 36%로 세계 평균 흡연율보다 높으며, 담배 소비량도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의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왜 독이 든 마약을 돈 주고 마시는가? ■